사계절 푸르른 양잔디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 한국 첫 숲 사격서 나온다

## 女트랩·공기소총 조준 끝내…유도·체조·수영도 도전

### 女하키, 대만과 오늘 첫 경기

한국선수단이 2일(이하 한국시간) 사격을 선봉에 내세워 제15회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사냥을 시작한다.

1일에는 대회 개막식 때문에 경기가 열리지 않았지만 각 종목 선수들은 훈련장에서 땀을 흘리며 컨디션을 조절해 왔다.

한국선수단에 처음 금메달 소식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종목은 사격. 역대 대회에서 경기 일정 맨 앞에 배치돼 제일 먼저 희소식을 전해줬던 사격은 여자트랩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더블트랩 은메달리스트 이보나(우리은행)가 버티고 있는데다 이명애(김포시청), 이정아(상무) 등 출전 선수 모두가 기량이 고른 편이어서 금메달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중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공기소총에서는 남자부 김혜성(동국대), 유재철(대전체고)과 여자부 구수라(광주시체육회)가 두둑한 배짱을 앞세워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낼 수도 있다.

사격이 끝나면 한국의 '메달 박스' 유도가 기다리고 있다. 유도는 4일간 16개의 금메달을 쏟아내기 때문에 초반 메달레이스와 한국 선수단의 사기에 큰 영향을 준다.

2일 출전하는 기대주는 남자 100㎏급의 장성호(수원시청)다. 한번도 이겨보지 못한 일본의 이시이 사토시가 버티고 있지만 체력의 열세를 노련미로 극복하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에이스 양태영(포스코)을 앞세운 체조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고 육상 다음으로 가장 많은 메달이 걸려있는 수영에서는 한국여자수영의 희망 최혜라(방산중)와 정슬기(서울체고) 등이 메달에 도전한다.

방글라데시를 3-0으로 격파하고도 내용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한국축구도 베트남을 상대로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 특히 이날 경기에는 러시아리그 제니트에서 뛰는 이호, 김동진이 합세해 명실상부한 베스트멤버를 출동시킨다.

이밖에 아시아 최강 자리 복귀를 노리는 정구는 단체전을 시작으로 메달 사냥에 나서고 여자하키는 대만과 첫 경기를 갖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일 새벽 (한국시간) 도하 스포츠시티 내 바스켓볼 인도어 홀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남자농구 예선 E조 1차전 바레인과 한국 대표팀의 경기에서 양동근이 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모저모

### 쿠웨이트 女볼링 첫 출전

○…쿠웨이트 여자 볼링이 중동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화제다.

1일(한국시간) 볼링대표팀 등에 따르면 중동 국가 가운데 역대 아시안게임을 포함, 국제볼링대회에 여자 대표팀을 내보낸 적은 여태 없었다.

여자선수들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히잡 등 전통복장을 하고 레인에 설 예정이지만 쿠웨이트에 메달을 안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 '핑퐁여왕' 해설가 데뷔

○…제15회 아시안게임에서 왕년의 '핑퐁여왕' 양영자(42)씨가 SBS-TV 해설자 깜짝 데뷔한다. 지난 1980년대를 주름잡았던 '녹색 테이블의 스타'였지만 1989년 은퇴 후 오래 탁구와 인연을 끊고 생활하다 15년여 만에 처음으로 해설을 맡았기 때문이다.

양씨는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때 현재 대표팀 사령탑 현정화 감독과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했고 단식은 물론이고 현 감독과 호흡을 맞춘 복식, 유남규 남자 대표팀 감독과 출전한 혼합복식에서 각각 동메달을 수확한 여자 간판이었다.

# 박주영 선봉장으로 오늘밤 베트남 공격

### 男축구 2차전

20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하는 베어벡호가 베트남을 제물로 연승 행진에 탄력을 붙일 전망이다.

핌 베어벡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남자축구 대표팀은 2일 밤 11시15분(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알 아라비 스타디움에서 도하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베트남과 맞붙는다.

베어벡 감독은 지난 달 28일 방글라데시와 첫 경기에서 3-0 승리로 여섯 경기나 이어져 온 무승 갈증을 풀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맥 전선에 가속도를 붙여야 할 때다.

베트남은 2003년 10월 코엘류호에 충격의 패배를 안겼던 팀이다. 대표팀 역대 전적에서 15승6무2패로 앞서 있지만 최근엔 두 골차 이상 스코어를 벌리기 힘들 만큼 베트남은 실력이 부쩍 늘었다.

B조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조 1위 자리를 위협할만한 중동의 복병 바레인과 첫 경기에서 1-2로 패해 만만찮은 방어벽을 과시했다.

베어벡호의 당면 과제는 방글라데시전에 세 골차를 내고도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했던 '내용'을 얼마나 깔끔하게 가다듬을 수 있느냐다.

베어벡호의 공격 선봉에는 '도하맨' 박주영(서울)이 나선다.

방글라데시전에서 두 골을 뽑아 감각을 끌어올린 박주영은 두 경기 연속골 행진으로 자신을 스타덤에 올려준 작년 1월 카타르 청소년대회의 기억을 되살릴 태세다. 박주영은 카타르대회에서 연속골 퍼레이드를 펼쳐 신드롬을 일으켰다.

중원의 삼각편대로는 K-리그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고 나서 휴식을 취한 김두현(성남)과 백지훈(수원), 러시아 리그를 마치고 돌아온 이호(제니트)가 나선다. 셋 모두 이번 대회 첫 출전이다.

K-리그의 유력한 MVP 후보 김두현은 소속팀 성남의 통산 일곱 번째 리그 우승을 일궈내느라 지칠대로 지친 몸을 지금껏 추슬러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일 베트남전을 앞둔 2006 도하 아시안게임 남자축구대표팀이 도하 아스파이어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女탁구 만리장성 허문다

'2005아시아선수권대회 때 중국을 격파했던 녹색 테이블 기적의 감격을 재현하라'

제15회 도하 아시안게임 여자 단체전 준결승에 오른 여자탁구 대표팀에 내려진 특명이다.

현정화 감독이 이끄는 여자팀은 예선리그를 1위로 통과한 뒤 8강에서 인도를 3-0으로 완파하고 4강에 올라 2일 중국과 결승 길목에서 피할 수 없는 정면 대결을 벌인다.

중국은 국제탁구연맹(ITTF) 세계랭킹 1위 장이닝과 2위 궈얀, 3위 왕난, 4위 궈예를 앞세워 난공불락의 아성을 구축했다.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단체전 결승에서 김현희와 김향미를 내세운 북한에 불의의 일격을 당해 금메달을 놓친 걸 제외하고는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등 큰 대회 우승을 독식해왔다.

세대교체 진통을 겪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솔직히 버거운 상대다.

만리장성 허물기의 선봉에는 최고의 방패를 자랑하는 수비형 선수 김경아와 박미영(삼성생명), 귀화한 홍콩 대표 출신의 오른손 펜홀더 공격수 곽방방(KRA)이 나선다.

끈질긴 수비에 이은 빠른 공격 전환이 강점인 김경아와 박미영은 중국 선수들이 수비형에 약점을 보인다는 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 때 '탁구여제'로 군림했던 왕난은 왼손 셰이크핸드의 강점과 노련미가 돋보이지만 한 번 흔들리면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커트 수비로 괴롭히는 지구전이 묘책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류현진·이대호 "무조건 日 깬다"

### 한국야구, 오늘 오후 일본과 2차전

아시안게임 풀리그 1차전에서 대만에 패해 자력 우승이 힘들어진 야구대표팀이 2일 오후 3시 알 라얀 구장에서 열리는 일본과 2차전에 배수진을 치고 나선다.

더 물러설 곳이 없는 한국은 일본을 반드시 제압해야 일말의 희망을 노릴 수 있다.

위기에 몰린 김재박 대표팀 감독은 "야구는 변수가 워낙 많아 일본이 대만을 잡을 수도 있다. 포기하지 않고 일본전에서 다시 한 번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전에서 불펜에 대기했던 투수 3관왕 유현진(한화)이 선발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손민한(롯데)을 제외한 투수 8명이 몽땅 출격할 것으로 점쳐진다.

타선에서는 4번 타자 이대호(롯데)가 대만전에서 2루타와 3루타, 단타 등 3안타를 터뜨렸고 5번 이진영(SK)도 2안타로 뒤를 받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대만전에서 11안타를 합작했기에 찬스에서 부진했던 이병규(전 LG)와 박재홍(SK)만 살아준다면 1차전과는 전혀 다른 게임을 보여줄 것으로 관측된다.

가라앉은 팀 분위기를 추스르는 게 급선무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 일본은 사회인 야구 선수 출신으로 구성됐지만 일본 야구 특유의 세밀한 기술과 기동력을 갖춰 쉽게 볼 상대는 아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수영 박태환 3관왕 노린다

육상과 더불어 아마추어 양대 기초 종목으로 꼽히는 경영이 2일(한국시간)부터 카타르 도하 남서쪽 하마드 아쿠아틱 센터에서 제15회 아시안게임 금메달 39개를 놓고 열띤 경쟁에 돌입한다. 1970년대의 조오련과 1980년대 최윤희 이후 20년 넘도록 침체에 빠져 있던 한국 경영은 박태환(17·경기고)을 내세워 부활에 나선다.

박태환은 자유형 200m와 400m, 1,500m에서 3관왕을 노린다. 자유형 100m에도 출전하지만 경험을 쌓는 것이 목적이다.

박태환 이외에 여자 개인혼영 200m와 400m에 도전하는 정지연(경기체고), 남자 자유형과 배영, 접영 단거리에 모두 출전하는 멀티플레이어 성민(경북도청), 여자 평영의 정슬기(서울체고) 등이 입상권에 올라 있다.

나머지 금메달은 전통적으로 강세인 일본과 중국이 메달을 나눠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며 1개에 그친 중국을 제압, 아시아 최강자의 자리를 굳혔다.